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사람 · 자연 ·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비전 제시 · 5대 추진전략 공개… 도민 · 전문가 의견 수렴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향후 10년간 지역 발전의 방향을 담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중·단기 특화 발전 전략을 담았다. 계획 수립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도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했다.

종합계획은 수립은 2024년 12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시군 회의, 전략(안) 보고회, 전문가 자문, 종합계획(안) 보고회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연구원은 공청회에 앞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권역별로 △익산(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무주(무주, 진안, 장수), △정읍(정읍, 고창, 부안), △남원(남원, 임실순창)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 및 공무원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고,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고,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군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인,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종합계획(안)의 비전으로 '사람·자연·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제시하고, △생명경제 글로벌 중심 도약 △전환산업의 글로컬 성장 △연결도시의 세계적 확장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행복 증진 △연결도시 구축 △자치분권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연구원의 종합계획(안) 발표에 이어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원광대학교 이동기 교수는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방향과 목표, 전략과 과제로 체계화한 종합 청사진"이라며 "생명경제도시 전북의 정체성과 발전 가능성을 잘 담아낸 만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고시 예정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먹거리 · 생필품 '그냥드림' 사업 전북서 두 달 만에 1951명 혜택

최소 정보 확인 후 즉시 지원… 상담 통해 공적복지 연계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청 절차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행 두 달 만에 1,591명이 도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그냥드림'은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무주, 부안 등 도내 7개 시·군 푸드마켓·뱅크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5월부터는 군산과 남원이 추가돼 총 9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냥드림'은 복지제도 접근이 어려운 도민도 문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한 뒤 곧바로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이나 소득 증빙은 요구하지 않는다.

2회 이상 재방문하는 이용자에는 기본 상담을 통해 결식 우려 여부를 비롯해 주거, 채무, 건강 문제 등 위기 신호를 살핀다. 이후 필요 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사례관리 등 공적지원으로 연결함으로써 단기 지원이 반복되지 않고 제도권 보호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지원 물품은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쌀, 라면, 통조림 등 기본 먹거리와 휴지, 세면용품 등 생필품을 포함한 3~5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이용은 원칙적으로 월 1회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광역 단위 일괄 구매·배분 체계를 통해 물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장별 재고를 상시 점검해 현장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민관 협력을 병행한 점도 사업의 빠른 안착에 기여했다.

도는 시범 운영 과정서 확인된 이용 패턴과 상담·연계 성과를 토대로 읍면동 연계체계를 촘촘히 다듬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실질적 자립·보호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통합지원 나서

비자 · 생활 · 취업 지원 연계, 대학 · 전문기관 협력 기반 마련… 원광대 글로컬대학 상생사업 연계 · 전북형 지원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 취업,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대학 국제교류부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를 열고, 유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원광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지역상생사업과 연계해, 대학별로 분산된 외국인 유학생 지원 기능을 도 차원에서 연계·통합함으로써 대학 현장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원광대를 중심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행정·법률 분야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비자 변경, 체류 자격, 법률·노무·생활 상담 등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 이후 상담체계 구축 △비자·행정·법률·노무 등 생활 밀착형 지원 연계 △도내 유학생 및 기업 실태조사 △취업 연계 및 지역 정주 지원 △도내 대학 간 국제교류 협력 체계 운영 등이다. 특히 비자와 노동, 법률 문제 등 대학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통합 지원해 유학생의 학업 집중도를 높이고, 졸업 이후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비자, 법률, 생활 문제 등 대학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아졌다"면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 현장의 부담을 덜고 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연석 원광대 국제교류처장은 "원광대 글로컬대학 상생사업 재원을 바탕으로 도내 대학과 유학생 지원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도내 대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전북에서 학업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재해예방 · 복구사업 확대 및 조기추진

재해예방사업 105개 지구 2197억원 투입… 전년 대비 153%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재해예방·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재해예방사업 확대와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군 재해예방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전북도는 올해 재해예방사업 105개 지구에 총 2,19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규모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해 취약지역 대응을 강화 방침이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는 지난 12일 도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한 16개 반, 158명 규모의 '재해예방·복구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조기추진단은 설계, 공사 발주, 행정절차 이행, 보상 추진 등 사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며, 우기 이전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재해복구사업 가운데 아직 준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만회 대책을 마련해 조기 준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규 재해예방사업 57개소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 가축전염병 차단에 774억원 투입

상시 예찰 · 소독 · 점검 강화로 발생 요인 사전 차단 방침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총 774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최근 방역정책이 '사후 대응'에서 '발생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정부의 중장기 방역전환 방향에 발맞춰 선제적 상시방역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방역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4대 핵심 항목과 7개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예방 중심 투자와 현장 실행력을 바탕으로 상시방역 시스템을 강화한다.

분야별 예산은 △예방 중심 상시방역체계 구축 160억원 △현장 맞춤형 방역인프라 고도화 110억원 △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243억원 △보상금 등 기타 사업 261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돼지·닭 등 가축방역약품 17종 공급(103억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122억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63억원) 등이 추진된다. 특히 AI 재발 방지를 위해 도비 25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및 긴급방역비 5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가축 사육제한 △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철새도래지 소독·방제 강화 등 현장 맞춤형 대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평시에는 상시 예찰·소독·점검을 통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2026년 1학기 | 성인(리더자)의 필수! |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시낭송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 면접, 자신감, 리더십, 시낭송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 김양옥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표준과 면접(교직이론) 담당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주대입문사 부사장
- 전북안전교육원 외 기업, 기업체 특강 연기 강사
- KBC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외 강연자
- 스피치 컨설턴트
- 평생교육사
- 사회복지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 시낭송지도사
- 저서 "365 스피치유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행복한 스피치" 등

< 전북도내 평생교육원 각 지역별 모집 >

학교별	주요과정(매주 1회수업)	지역별(자유선택)
전주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금, 야간)	전주, 완주, 김제, 부안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 스피치&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지도사 스피치&웃음코칭(야간)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리더십(야간), 시낭송(야간)	익산, 김제, 논산, 강경, 무주
군산대학교(군산)	스피치기법과리더십(야간), 시낭송(야간),오이순지도	군산, 서천, 부안, 김제
전북학점은행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야간) (시낭송(야간),오이순지도	정읍, 고창, 순창
남원스피치 평생교육센터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곡성, 구례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3월에 학교별로 개강.